#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3.23~2015.3.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 혜민 | 수오서재 | 6 |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 달라이라마,툽텐최된 | 불광출판사 |
| 2 |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 월호 | (주)조계종출판사 | 7 |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 법륜 | 나무의마음 |
| 3 |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 성철,법정,원택 | 책읽는섬 | 8 |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 지명스님 | (주)조계종출판사 |
| 4 |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 원순 편역 | 법공양 | 9 | 발심수행장 | 공파스님 | 불광출판사 |
| 5 | 능엄경 대의풀이 | 남회근/송찬문 | 마하연 | 10 | 붓다프로젝트 | 원담 | 민족사 |

## "행복하려면 인색하지 말아라"

### 읽기만해도 신심나는 법구경이야기

**원빈스님 지음 | 이층버스 펴냄 | 1만 5천원**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 입문서는 바로 〈법구경〉이다. 서울대 인문도서 100선에도 꼽히는 이 〈법구경〉은 초기불교의 중요한 게송들이 선별돼 있다. 이 〈법구경〉의 모든 게송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한 부처님 가르침인지를 알 수 있는 인연담인 법구경 이야기(주석서)가 있다. 〈법구경〉 이야기를 공부하면 부처님과 제자들의 자비롭고 지혜로운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신심이 나고, 법구경 게송의 본래의 뜻을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다. 하지만 〈법구경〉에 비해 법구경 이야기는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아직까지 잘 소개되지 않았다.

불교를 새로운 시각서 바라볼 수 있도록 신선한 강의로 호응을 얻는 청춘 멘토 원빈 스님이 법구경 이야기를 선별하고 스토리텔링해서 친근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책을 만들었다. 제목처럼 읽기만 해도 신심 나는, 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책이 감동까지 선사한다. 기존 불교를 믿던 불자들에게도 유익하지만 불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다가가고 싶던 사람들에게 권할만한 책이다. 책에서 불교에 입문하는 첫걸음은 올바른 신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원빈 스님은 강조한다.

**법구경이야기 선별해 스토리텔링화**

**'의심이' 와 '신심이' 로 주인공 설정**

스토리텔링인 '의심이와 신심이 이야기' 의 주인공 '의심이' 는 '신심이' 라는 도반과 청정신심을 일깨워줄 '신심상자' , 그리고 '신심+' 의 도움을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구경 이야기〉를 경험한다. 현대인의 대표 '의심이' 는 점점 의심의 장애를 걷어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신심을 되찾게 되고, 독자도 그 경험을 함께 하며 신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소설 같은 입문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색함에 대한 경계를 주문한다. 스님은 "인색함은 정신을 마비시켜 가장 중요한 현재를 놓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사람과 원수 관계를 만들며, 가장 중요한 일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어 아집의 덩어리만 점점 살찌운다. 인색함에 눈이 먼 사람은 결코 행복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은 모든 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단 하나의 행복도 인색함에서 나오는 것은 없다."라고 조언한다.

이어 스님은 몸에 종기가 나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듯, 마음에 종기가 난 사람 역시 그에 못지않은 번뇌의 고통에 휩싸인다. 마음에 분노의 종기가 가득한 사람은 누군가 성질을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화가 터져버린다. 상황, 조건, 이유와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며 마음의 종기를 걷어내는 연습을 자주 하라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평화와 행복을 얻는 방법은?

### 깨어있는 마음으로 깊이 듣기

**틱낫한 지음 | 시공사 펴냄 | 1만 2천원**

2014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의식을 되찾은 틱낫한 스님이 뗀 첫마디는 바로 '행복' 이었다. 생사의 기로에서조차 잊지 않은 단어다. 이번 에세이의 주제도 바로 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늘 행복해지기를 꿈꾸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매 분, 매 초 고통과 마주한 현대인에게 틱낫한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금방이라도 부서져버릴 것처럼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 마음이 불안정할 때는 지구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 쉬면 된다' 고. 늘 곁에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온 존재 지구. 스님은 지구별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이 지구별의 품으로 돌아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라 설명한다. 행복을 주제로 다양한 서적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근본적이고도 사실적인 관점의 에세이는 현지 출간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수많은 독자의 이목을 끌었다. 문명의 발달에 쫓겨 잊고 있던 진정한 의미의 휴식, 그것을 통해 얻는 행복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 이 책을 지식인들은 '위대한 지혜' 라는 단어로 칭송했다.

당신이 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차 한 잔 마시면서도 다음 업무를 생각한다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에 급급하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권한다. 생사의 기로에서조차 틱낫한 스님이 전하고자 했던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평소 스쳐지나온 존재**

**인지하는 순간 번뇌서 해방돼"**

이 책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보다 근본적으로 평화와 행복을 얻는 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 방법의 중심에는 '지구별' 이 있다. 많은 사람이 "지구별은 단지 나를 둘러싸는 환경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우리는 지구별을 자신과 동떨어진 존재, 즉 객체로 보지만 사실 지구별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내 안에 지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 덩이의 빵이 토양, 햇볕, 빗물, 농부의 노력 등을 통해 형성된 존재이듯 우리 역시 지구별의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따라서 행복과 평화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지구별을 보호하고 또 지구별과 소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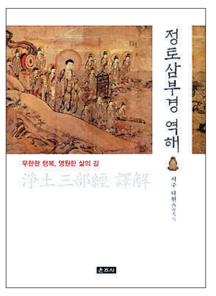
지구별의 품으로 돌아가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잠시 멈추어 깨어 있는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맛을 음미하고 거리를 걸을 때면 걷는 걸음과 호흡에 집중한다. 꽃을 볼 때는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세수를 할 때는 물의 시원한 감촉을 충분히 느낀다. 우리가 평소 스쳐 지나오던 것들의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아닌 지금 이곳에 온전히 존재하게 되며 비로소 수많은 고민에서 놓여난다.

김주일 기자

## 불교내의 '특별법문' … 정토법문과 염불수행

### 정토삼부경 역해

**번역 및 해설 서주 태원 | 운주사 펴냄 | 3만원**



불교서 말하는 팔만사천법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참된 성품을 깨달아 성불에 이르는 것이다. 이 길은 부파불교를 거쳐 대승불교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수행법으로 개발돼 남방불교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이 주를 이루고, 북방불교에서는 유식종의 유식관, 선종의 참선, 밀교의 주력, 정토교의 염불과 이 외에 참회, 사경 등의 많은 수행법이 실천된다.

이 가운데 정토법문과 이를 실천하는 염불수행은 인광대사 말에 따르자면 불교 내의 '특별법문' 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다른 법문들은 대개 자신의 수행력으로 불성을 밝혀 깨달음을 얻는 자력의 측면이 다분한 반면, 정토법문은 아미타불이 세운 본원력에 의하여 타방정토인 극락에 왕생하여 깨달음을 얻는 타력 내지 불력의 법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토법문은 자신의 힘만으로 계정혜를 닦아 생사를 벗어나고 깨달음을 이룰 가능성이 희박한 중생이 아미타불의 본원력과 가피력에 의지해 서방정토에 왕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승불교의 특별한 법문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정토법문을 믿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나무아미타불' 을 부르는 염불수행을 해왔다. 왜냐하면 '아미타불' 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다른 수행에 비해 아주 간단하고 쉬워 출가나 재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평생 정토를 신앙하며 학문적으로 정토교학을 깊이 연구하여 다수의 정토 관계 저술을 해온, 한국 정토불교계의 대표적 학승이라 할 수 있는 태원스님이 정토삼부경을 번역하고 해설한 것이다. 경전원문을 번역함에 있어 기존의 여러 원전 판본을 꼼꼼히 대조하고 교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도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아울러 각 문단마다 경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해 간략하면서도 명쾌한 해설을 덧붙였다. 해설을 함에 있어서 원문의 자구적인 뜻과 교학적이고 학문적인 의미 전달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경전을 읽으면서 정토법문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왕생을 발원하여 실제로 염불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면을 더욱 부각하여 해설하였다.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지적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설하는 가르침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정토법문의 기본 교학적인 해설에 덧붙여 이러한 신앙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이 새의 두 날개처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는 데 기존의 정토삼부경 번역본과는 다른 특징과 의의가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정토법문의 특징은 이렇다. 첫째는 수행하기 쉽다는 점이다. 염불은 수행의 능력이 높고 낮음, 죄가 있고 없음, 남자와 여자,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복잡하고 많은 학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르지 '아미타불' 의 명호만 부르면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해 무생법인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 평등하게 구원된다는 점이다. 아미타불의 본원은 남녀노소, 학식이 많고 적음, 죄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오직 염불하는 수행자는 다 구제한다. 아미타불께서는 상근기보다 하근기를 위해, 선인보다 악인을 불쌍히 여겨 본원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셋째는 생사를 단번에 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겼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의 영생, 도교의 불로장수, 불교의 무량수(無量壽) 등을 지향하는 것들이 그렇다. 그런데 염불하는 사람은 생사가 끊어진 세계에 태어나기 때문에 단번에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존 여러 원전 판본 꼼꼼히 대조**

**깊은 이해 위해 명쾌한 해설 덧붙여**

넷째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수행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퇴전할 뿐만 아니라 마장의 방해를 받아 언제 성불할지 기약이 없지만, 염불하여 정토에 태어나면 불퇴전의 지위에 올라 뒤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불이 언제나 눈앞에 있다. 다섯째는 수행하기 좋은 도량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 사바세계에서는 향락에 쉽게 현혹되어 미혹에 빠지게 되고, 주위환경이 주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무상은 신속하여 몸은 늙고 병들어 간다. 하지만 극락정토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건설된 수행공간으로 이러한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장엄된 모든 것들은 법음을 울려 수행을 독려하여 무생법인을 얻게 한다.

한국불교에서 수행 하면 보통 화두참선을 제일로 친다. 하지만 화두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너무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 자력으로 할 수 없으면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의 근기가 낮은 대중들에게 수행의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김주일 기자


# 개복숭아, 구지뽕

##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5천이상 가능!!**

- 최고 소득 작물로써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2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음으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효도나무입니다.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솎기, 밭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고혈압, 당뇨, 항암,
기관지, 폐에 좋다고 소문난
건조된 구지뽕 열매 1kg 시중에
~~10만원~~ → 5만원 판매

구입문의 010-5114-7588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 | | |
|---|---|---|
| 가루 자죽염 | 125g | 40,000원 |
| 가루 자죽염 | 230g | 73,000원 |
| 알갱이 자죽염 | 125g | 43,000원 |
| 알갱이 자죽염 | 230g | 78,500원 |
|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 20g | 7,5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 | | |
|---|---|---|
| 보급형 민속죽염 | 500g | 18,000원 |
| | 250g | 9,000원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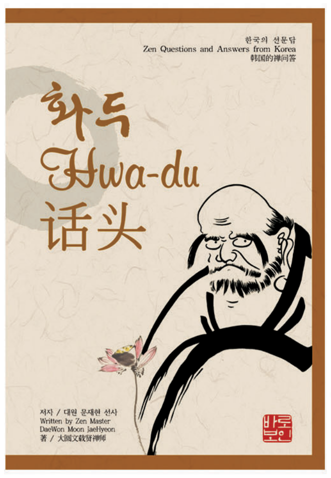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 바로보인 천부경

1986년 5월 15일, 당시 단군선양회를 이끄시던 안호상 박사님과 김경수 참의원님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즉석에서 현토하고 설했던 것을 1997년이 되어서야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삼부경인 천부경, 교화경, 치화경이 함께 실려 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혜안의 통찰력으로 밝힌, 인류를 선구적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봉화적 역서, 삼부경!

# 화 두




'화두' 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포천 서울 부산 광주에서 매월 선사님의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MoonZen Press) ☎ 031-534-3373